외손녀 따라간 독일여행 【3】

權 五 庠
편집고문

▲ 파리의 디즈니랜드 앞에 선 딸 내외와 연수, 그리고 필자

저녁녘에 파리에 입성하기 시작했다. 아마 여섯 시쯤이었다. 역시 지피에스를 따라왔으나 근처에서는 그리 쉽지 않았다. 딸이 열심히 예약해 둔 머큐어Mercure 호텔에 전화로 물었다. 파리시 입구이므로 그리 찾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이었다. 두어 차례 돌아 호텔 입구를 찾았다. 사위는 주차가 여의치 않아 또 고생을 했다. 그 호텔은 아파트 호텔이라는 좀 색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 호텔의 특성은 가족끼리 밥도 해 먹을 수 있게 모든 취사도구를 준비해 두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콘도와 호텔을 혼합한 변종인 것으로 생각된다. 가운데는 정식 호텔이 있고 그 옆에다 붙여 별도로 만든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와서 호텔 방에서 밥을 지어먹는 등 반칙을 자주 하니, 이런 식의 편법 호텔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엉뚱한 생각도 해 본다. 내가 처음 파리에 들렀을 때는 대형 호텔이 아니면 영어가 통하지 않았다. 그때 현지 공관 사람들의 말로는 영어를 아는 사람도 의도적으로 못알아듣는 척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프랑스가 가장 심하다는 말도 했다. 지금은 작은 호텔에서도 영어는 잘 통했다. 쇼핑센터같은 데서도 그런대로 가능했다. 아마 이 모두가 그동안 찬반 논란 속에서도 꾸준히 추진되어온 국제화, 세계화의 결과이리라 생각해 본다. 무슨 일에서나 반대에는 굴복이 아니라 설득과 극복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 생각되기도 한다.

음료수를 사온다, 부식거리를 사온다, 간식을 사오는 것 등으로 호텔을 뻔질나게 드나들었다. 막 어두워지려 하는데, 연수가 모애노이(모래놀이)를 가잔다. 연수를 안고나가 모래놀이 장소를 찾으려 했으나 막막했다. 조금전 시장갈 때 어린이놀이터를 봐 둔 기억이나 찾으려 했으나 어려웠다. 한참 안고 걷는데, 멀리 공사장이 한 곳 보인다. 그리로 갔더니 역시 모래땅이 있다. 그곳에는 많은 개미가 돌아다니고 있었다. 연수를 내려놓으며 개미에게 물리면 안된다는 말을 해 준다. 개미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생각하던 연수는 다시 안아달라며 호텔로 가잔다. 아무런 말썽 없이 연수를 안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연수에게 파리에 가면 디즈니랜드에 간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오늘은 무조건 디즈니랜드에 가야 한다. 어제 왔던 길을 다시 가면서 디즈니랜드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도착해보니 미국이나 일본에서 본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우리 부부는 양쪽 다 보았기 때문에 연수네 식구만 들어가게 했다. 둘은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기다리는 시간이 좀 지루할 것같았으나 사람 구경, 꽃 구경, 휴식과 사색 등으로 별 어려움 없이 시간을 보냈다. 느지막이 사람들이 거의 나간 뒤에 나와 우리를 찾느라 돌아다녔다는 것이다. 연수는 너무 어려 잠을 잤고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한 것같은 감이다. 아직 어리기 때문이지만 영리한 아이니 잠재적으로나마 좋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여기며 다시 파리로 향한다.

밤에는 파리의 야경이 보고 싶었다. 막상 저녁식사를 끝내고 나니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그대로 잠이 들고 만다. 옛날 파리에 왔을 때는 목적이 대사관과 무역관을 비롯한 주변기관 방문이었다. 저녁만 되면 각기관이 번갈아 저녁을 사고 술을 사는 통에 파리의 밤거리를 제대로 구경할 기회가 없었다. 유난히 기억나는 것은 파리에 머문 마지막날 밤에 번화가의 술집에서 밤새 마시고 런던으로 날아간 일이다. 이번이 파리의 야경을 볼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마저 놓쳐 아쉬움이 남는다.

그 호텔에서 일박을 더하고 아침에 체크아웃을 했다. 방값은 두 방에 약 3백 유로에 가까웠다. 바로 차를 몰아 에펠탑을 찾아 나선다. 호텔을 잘 잡은 탓으로 아주 가까웠다. 탑 아래에는 오르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이어져 있다. 올라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나는 이미 옛날에 올라간 적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니 아쉬웠다. 특히 연수를 안고 올라가 파리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했으면 좋으련만 그것도 유감이다. 위에 올라가면 사방팔방으로 파리 시내를 더 자세히 바라볼 수 있고 가운데는 회전하는 원형 테이블이 있어 거기 앉아 커피를 마시면 잔이 흔들거린다는, 내 희미한 기억을 차속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대신했다. 그 탑을 지나면 바로 나오는 콩코드 광장에 마침 차 세울 곳이 있어, 모두 내려 그 광장을 거닐었다. 사진도 찍고 연수에게 분수도 보였다. 광장 가운데 서 있는 오벨리스크같은 비석도 구경하고 사진도 찍었다. 루불박물관과 베르사이유궁전은 그쪽을 바라보는 것으로 대신했다. 집사람은 베르사이유궁전을 꼭 가보자고 했으나 그것이 되지 않아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선문으로 차를 몰아 한 바퀴 돈 뒤, 몽마르뜨 언덕을 찾아 나섰다. 맨 위에 올라가니 큰 성당이 있어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서는 미사가 진행중이었고 함께 관광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나와서 살펴보니 몽마르뜨 언덕도 많이 변해 있었다. 그 언덕 위에는 잔디도 있었고 군데군데 잔디가 벗어진 맨땅도 그대로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지금은 모두가 아스팔트나 시멘트、돌、불록 등으로 바뀌어 있다. 서투른 화가들이 초상화를 그려 주는 장면도 많이 줄었다. 길 양쪽에는 기념품가게들만 가득하다. 주변을 돌며 파리 시내를 둘러보고 내려오려는데 딸이 보이지 않는다. 주변을 다 둘러보고 성당 안에도 다시 들어가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다. 딸을 찾느라 한동안 부산을 떨었다. 연수는 사위가 꼭 안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더 기다렸다. 집사람도 당황하며 위아래를 오르내린다. 딸은 얼굴이 빨개져 되올라오고 있었다. 모두 먼저 내려간 줄 알고 자동차 세워둔 데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왔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해외여행에서는 절대 나홀로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모두가 함께 내려와 차에 오른다.

파리 관광을 이렇게 간소하게 끝내고 떠나려니 어딘가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형편상 도리가 없다. 당초에는 파리와 베를린 사이에서 일박을 하고 부뤼셀을 돌아볼 예정이었으나 사위의 일정 때문에 베를린으로 직행하기로 했다. 어디에서나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쾌히 동의했다. 프랑스 국경을 거의 벗어날 즈음 열심히 달리는데 백미러를 보던 사위가 갑자기 뒤에서 차가 한 대 뒤집어졌다고 외친다. 깜작 놀라 나도 백미러를 보니 저 멀리 방금 지나온 오른쪽 갓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인다. 그 순간 사위도 속도를 늦추었고 나도 "저것이 교훈이니 절대 빨리 달리지 말라"고 일렀다. 과거 직장 동료 한 사람이 유럽 근무를 하며 아우토반을 달리다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일이 생각났다. 말없이 앞만 응시하며 '아마 그 사람도 저렇게 떠나갔겠지' 생각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내며 잠시 눈을 감고 명복을 빌었다.

열심히 달리다 보니 어느새 벨기에 땅을 지나 바로 독일 땅에 들어선다. 엄청나게 빨리 온 셈이다. 중도에 맛있는 피자집을 찾아 점심도 먹고 휴식도 취했다. 독일 땅에 들어서자 고속도로변의 모습에서 단박 알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내리는 직통로를 놓쳐, 좀 돌았으나 집에 도착하니 밤 12시가 지나고 있었다. 파리에서 낮 12시쯤 출발했으니 꼬박 12시간을 달려 온 셈이다. 출발하여 돌아온 거리를 계산하니 총 2,500㎞다. 약 6천리 길이다. 사위가 차 모느라 큰 고생을 했다. 수고했다는 말로 위로에 대신했다.

아침에 일어나자 사위가 바로 2층 버스 타러 가잔다. 무조건 좋다고 따라나섰다. 바로 집 앞에서 버스를 타고 어느 정도 갔다가 되돌아오는, 그야말로 짧은 여행이었다. 베를린 거리의 이른 아침 모습을 높이 앉아서 잘 볼 수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는 베를린 사람들이었다. 과거 내가 구라파를 돌아볼 때도 다른 나라에서는 모두 아침 열 시는 되어야 움직이는데 비하여 유독 독일 사람들만이 새벽 다섯 시부터 움직였다. 거의 모든 가게 문이 열리고 화물차와 승용차들이 거리를 누비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역시 독일 사람들은 부지런하다는 인식을 다시 갖게 된다. 집에 들어와서 아침 운동을 하고 연수가 깰 때까지 기다린다.

동베를린 쪽에 있는 상수시궁전이라는 데를 찾아갔다. 그 궁전은 좀 높은 곳에 무슨 학교 건물마냥 일열로 자리잡고 있다. 앞의 터는 낮아져 언덕을 내려가야 정원에 이른다. 그 정원에는 이름모를 여러 가지 꽃들을 색색이 구색을 맞추어 심어, 보기에 참 좋다. 궁전 안에서 이 꽃밭을 내려다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를 생각해 본다. 이것이 당시 임금의 하계별궁이었다니, 어디서나 왕들은 극도의 호사를 누렸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베를린 시청앞 광장으로 가 분수를 좋아하는 연수에게 큰 물줄기를 보며 뛰놀게 했다. 그곳에서도 연수는 친구가 그리워 독일 아이들에게 접근해 얼굴도 만지고 손도 잡아보려 한다. 그 아이들 역시 피한다. 시무룩해진 연수는 바로 생각을 바꾸어 분수와 동상이 있는 곳으로 가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명랑하게 뛰논다. 참으로 대견스럽고 귀엽다. 그 시청건물은 크거나 웅장하지 않다. 그 소재지가 동베를린 지역이니 과거에는 인민위원회였을 것으로 짐작한다.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다가올 통일 후의 평양시 모습을 연상해 본다. 집에 돌아오니 연수는 또 '모애노이 를 가잔다.

이번에는 모래놀이 장소를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북쪽의 놀이터로 갔으나 오늘은 남쪽 놀이터로 간다. 스테글릿츠Steglitz 구청청사 앞을 지나 역시 작은 공원에 부설된 깨끗한 놀이터다. 그곳에 도착한 연수는 즐겁게 놀이기구에 오르내린다. 미끄럼도 타고 그네도 탄다. 모래놀이를 할머니와 재미나게 하는 것을 나는 흐뭇이 지켜본다. 그 놀이터 역시 철망울타리가 쳐져있는 등 환경과 여건이 매우 좋다. 그 바로 옆에는 자그마한 동네 축구장이 있다. 근처에 사는 동네 청소년이 수시로 나와 축구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비록 좁고 작은 축구장이나 사방에 높은 철망을 쳐두어 공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일은 없다. 연수가 할머니와 모래놀이를 하는 동안 나는 동네축구를 열심히 지켜본다. 그 실력들이 비범하다. 모두를 일류 선수로 착각할 정도다. 독일에서는 이와 같은 동네축구장을 많이 만들어 잠재선수들이 길러지는 것 같다. 독일 축구가 강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유라 생각해 본다. 지난 서울 월드컵 때 거미손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아유브칸 선수가 생각난다. 나는 그 때 그 선수의 인상과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옛날 독일 어느 장군의 후예일 것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 선수의 선조 가운데 어느 장군이 이번 여행에서 내 가슴속 깊이 담은 고성 에렌부라이트스타인 요새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엉뚱한 생각도 해 본다.

5월 10일은 토요일이다. 사위가 자는데 방해될까봐, 조용히 기다려 아침운동을 시작한다. 맨손체조를 끝낸 뒤 아령을 들었다. 등과 허리에 약간의 이상을 느낀다. 깜짝 놀라 아령을 내려놓고 숨고르기를 하며 스트레칭도 함께 했다. 고등학교 때 평행봉과 팔씨름을 과도하게 한 탓으로 늑막염을 앓은 적이 있다. 해외여행 중에 등이나 허리에 이상이 생기면 더 큰 어려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며 운동을 멈추었다. 등과 허리에는 약간의 불쾌감이 계속 남아 있다.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모두 함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역시 동베를린 지역에 있는 샤드로템 궁전으로 가 또하나의 궁전을 둘러봤다. 연수를 데리고 꽃도 보고 잔디 위에 돌아가는 물뿌리개 호스에서 뿌려내는 물을 피해 뛰어다니기도 했다. 분수대에

▲ 파리의 콩코드광장에 선 필자 내외와 외손녀 연수